'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라 -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 여러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밖에서 내리는 눈을 잠시 바라보며 다시 6천 마일 거리의 한국에 돌아와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메마른 4월 같기도 하고 한국의 초가을 같기도 했던 샌디에고의 1월. 떠나오기 전 마지막 주말에 내린 단비가 재난의 불씨를 제거하며 성도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씻어주었던 일.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25일 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멀리 있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중도의 길을 걸으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는 중도의 길을 택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타협과 절충으로 좌·우를 통합하여 제 3의 길을 찾으란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타협과 절충은 정치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 곧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신2:27; 5:32-33; 17:9-11, 20; 28:13-14; 수1:7-8; 23:6), 정말 물리적으로 좌향좌 또는 우향후 해서 가는 상황 외에(신 2:27),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바는 **다른 것에 한눈 팔며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말씀에 따라 옳은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빗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은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28:13-14)

원문대로 직역한다면 14절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들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부터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때 그 때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마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요약이자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 원칙에 근거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서 이루어집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 한 것이고 이에 후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13:8-10)

어느 새 눈이 그치고 밝은 해가 비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주의 말씀으로 안부 전하며 최광현·이상아 드림)